

# 올해 IT·가전산업만 잘 나간다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깔 것이라 예측이 나왔다.

대선을 비롯한 국내정치의 혼란, 하방압박에 직면한 중국경기, 미국금리인상과 후폭풍,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4가지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 전망이다.

지난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산업기상도'에 따르면 IT·가전산업만 '맑음'으로 관측됐다.

건설, 정유·유화, 기계 등 3개 업종은 '구름조금', 철강, 섬유·의류 등 2개 업종은 '흐림', 그리고 조선, 자동차 등 2개 업종은 '눈 또는 비'로 예보했다.

올해 햇살이 비칠 것으로 전망되는 IT·가전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 PC, 스마트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같은 신기술 신제품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 중인 반도체 부문이 호조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 대한상의 '2017 산업기상도' 발표 자동차는 내수감소·중국차 상륙 등 먹구름

이밖에도 스마트폰 화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CD 액정 대신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인 OLED로 교체될 것이라는 점, 9월말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제가 종료되면 고급형 스마트폰 구매수요가 늘어날 것인 점도 긍정적이다.

건설산업은 호황을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구름조금'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3 부동산 안정화대책, 올해 금리인상 전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대규모 입주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는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계산업은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구름조금'으로 지적됐다. 신항로의 노후 건설기계 교체주기가

다래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설비투자 재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확장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중국산 기계제품이 기술력이 높아지며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겹쳐 '구름'으로 예보됐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0% 이상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고 태국, 인도, 대만 등 신흥국도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섬유·의류도 신흥국의 저가 물량공세와 모바일·인터넷 거래확대로 단가 하락, 생산감소가 예상돼 '구름'으로 전망됐다.

조선은 구조조정과 수주절벽의 직격

탄을 맞으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다. 전세계 무역량 감소로 수주가들이 계속되고, 구조조정으로 건조물량 취소와 계약취소 등 일감부족이 심화될 것이라 지적이다.

자동차도 내수감소, 중국차 상륙, 미국내 투자압박의 삼중고가 겹치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다. 올해 내수 감소폭이 3.5%로 지난해(0.4% 감소)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 자동차마저 내수시장 잠식에 나서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심리경기가 바닥인데다가 대외상황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 매우 위협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산업을 위해 관심 갖고 응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임실농협 홍고추 공선출하회가 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6 농협중앙회 우수생산자조직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본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임실농협 홍고추 공선출하회 우수생산자조직 연도대상 본상 수상

임실농협 홍고추 공선출하회가 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6년 농협중앙회 우수생산자조직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3년 결성된 임실농협 홍고추 공선출하회는 회원수 590여명이며, 생산규모 130ha에서 지난해 수매물량 591톤으로 962억원의 공동계산을 했으며 재배기술향상 및 마케팅교육과 품종통일을 위해 수확시기별 각 지역 시범포를 운영하는 등 우수한 품종을 선

정 품종통일에 앞장서는 등 타 공선출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우수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강한 생산자조직을 발굴해 전북농협 조직화 육성의 우수사례로 활용 더욱더 강화고 전문화된 조직육성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 연 5,000만원 소득창출 및 산지유통의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한우 혈통부터 도축 정보까지 '한눈에'

### 농진청, '원스톱 한우개량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한우개량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한우개량정보 조회 서비스'를 정식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립축산과학원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

지주(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축육개량협회가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정부 3.0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가와 소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다.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성별, 생년월일 등 한우의 기본정보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전평가, 혈통, 번식, 이력 및 도축 등 개량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농가에서는 한우 개량정보를 각 기관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으나,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의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우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도축정보와 육질등급 뿐만 아니라 혈통, 교배, 질병 등의 상세 정보와 사육지역, 농가의 이력정보도 조회가 가능해 한우고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김시동 가축개량정책과장은 "여러 기관이 협력해 농가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 서비스가 한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국내최초 물류전문 CEO과정 GLMP 25기 모집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는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과 공동으로 제 25기 글로벌 물류 최고경영자 과정(GLMP)을 모집한다.

'글로벌 물류 최고경영자과정(GLMP)'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지난 2005년부터 인하여 물류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설해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한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물류전문 CEO과정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한국무역협회 'GLMP 홈페이지(www.glnp.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장소는 서울 강남구의 무역센터이며 교육은 주 2회 진행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이버연수실(02-6000-8291)로 연락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농협, AI 확산방지 일제소독 실시

설 명절 전후 AI 확산방지 및 종식을 위해 '전국일제 소독의 날'에 동참할 저수지 일원 농협 무인헬기 2대를

추가로 참여시켜 소독을 실시했다. 1일 고창부안축협이 주관하고 고창군청, 부안군청, 농협지역본부, 농협



농협은 1일 동립저수지 일원에서 AI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고창·부안군지부, 선운산농협, 하서농협이 참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무인헬기 2대와 NH 방역단 차량 2대, 공동방역단 차량4대를 이용해 동립저수지 일원의 차단방역을 진행했다.

이번 전국 소독의 날에는 동립저수지 주변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소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행사전 '나눔축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도 마련해 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됐다.

고창부안축협 김대중 조합장은 "AI 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AI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이스타항공, 6월 여행고객 엘리버드 특가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6월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엘리버드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국내선은 편도 총액운임 기준으로 김포-제주 항공권이 최저 1만4,900원~. 청주, 군산, 부산-제주 노선이 최저 1만5,900원부터 제공된다.

또한, 국제선의 경우 편도 총액운임 기준 인천-도쿄(나리타) 6만9,2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5만9,200원, 부산-오사카(간사이) 5만4,200원, 인천-후쿠오카 6만4,200원, 인천-오기나와 6만9,2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중국노선은 편도총액운임 기준 청주-선양(심양) 7만4,200원, 청주-연지(연길) 10만4,200원, 청주-하얼빈 7만4,200원, 청주-닝보(영파) 6만9,200원부터 이용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북중기청, 장비이용료 최대 3~7000만원 지원

전북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고가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국가장비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총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전북지역은 14개 대학·연구기관의 615대 연구장비가

등록해 73개 중소기업이 1,514회 연구장비를 활용했으며 전국적으로 164개 대학·연구기관의 9,000여대 연구장비가 등록됐고 1,225개 중소기업이 1만 8,233회 연구장비를 활용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이용할 경우 장비이용 비용의 60~70% (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 최대 3~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화(063-210-6451)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眞心  
홍삼주